

# 유치원 563곳 중 30곳에만 스프링클러

〈광주·전남〉

### 전남 특수학교 8곳 모두 없어 초·중·고교도 설치율 바닥 화재 무방비 대형사고 우려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만 6세 이하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특수학교는 전체 8곳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방재 전문가들은 "시설 내장재에 따라 화재 발생 후 3분 안에 전체 시설로 불이

확산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때 스프링클러가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영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특수학교에서의 화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한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학교급별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특수학교 5곳 중 2곳에 설치됐고 전남은 특수학교 8곳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수학교 재학생들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응능력이 떨어져 비장애인 보다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에도 안전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전국 특수학교

168곳 가운데 58곳(35%)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지역 유치원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매우 낮았다.

광주 127곳 중 10곳(7.8%), 전남 436곳 중 20곳(4.5%)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초등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광주 154곳 중 24곳(15.5%), 전남 491곳 중 37곳(7.5%)였고, 중학교의 경우 광주 89곳 중 16곳(17.9%), 전남 259곳 중 30곳(11.5%)이었다. 고교는 광주 66곳 중 26곳(39.3%), 전남 143곳 중 32곳(22.3%)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의 경우 지난 2004년 화재에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신설 학교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여하면서 설치율이 낮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지난 2015년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은 물론 기존 유치원에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 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시설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해영 의원은 "기본적인 자동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특수학교의 취약한 재난 예방 시스템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스프링클러를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6    달뜨기 09:28  
해질 18:02    달지기 20:20

체감온도 '뚝'

고기압 영향으로 맑겠다.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
남부	면바다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북동	0.5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동부	면바다(서) 북서~북	0.5~1.5	북~북동	0.5~1.5

◇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보통	지외선
좋음	미세먼지

◇ 주간 날씨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날씨	☀	☀	☀	☀	☀	☀	☀
강수량	6/20	8/21	9/22	9/21	9/21	9/21	8/20

## 광주 새마을회 보조금 대부분 행사 예산 소진 시민단체 지원 폐지 요구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회에 지원한 보조금 5억원이 대부분 행사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회에 지원한 보조금 사용 내용을 공개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4억9885만원이다.

광주시 1억5000만원, 동구 5100만원, 서구 8495만원, 남구 7550만원, 북구 7350만원, 광산구 6390만원 등이다.

보조금 대부분은 새마을회 행사 예산으로 쓰였다.

광주시가 지원한 보조금은 광주 새마을지도자대회(70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620만원), 새마을지도자교육(116만원), 자원봉사워크숍(2100만원) 등에 사용됐다. 5개 자치구가 지원한 보조금 대부분도 캠페인 등 새마을회 행사에 사용됐다고 시민회의는 밝혔다.

또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사업' 예산 4000만원 가운데 56%(225만원)가 시상금, 시상식 예산으로 사용됐고, 15%(617만원)는 식대로 쓰였다.

시민회의는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폐지를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북구 우산동에 문 연 자활생산물 공동판매장.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자활생산물 공동판매장인 'The드림 채움장터'가 11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옛북광주 등기소 자리에 문을 열었다. /니평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행락철 10월 '최다'

### 지난해 사망 507명중 60명 교통사고 치사율도 가장 높아

광주·전남에서 1년 중 가을 행락철인 10월에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7269건으로 507명이 숨졌고 2만7548명이 다쳤다.

이 중 10월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1557건으로 60명(11.83%)이 사망, 2588명(9.39%)이 부상을 입어 1년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치사율도 월평균(2.9명)보다 높은 3.9명을 기록했다.

광주전남본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이나 동호회 모임 등 전세버스 이용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행락철(10~11월)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월평균 대비 발생건수는 20.2%, 사망자 수는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전세버스 출발시간대(새벽 4시~오전 8시)와 출몰운전에 취약한 야

간시간에 사망자가 집중 발생했다.

광주전남본부는 10월과 11월을 '전세버스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광주 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교육청 등과 함께 광주에서 출발하는 수학여행 버스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버스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전세버스 회사를 방문해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안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요 전세버스 집결지에서 현장 단속도 확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와 운전자 최소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박종철 사건 수사 정권외압에 축소·조작"

### 검찰 과거사위... "김근태 고문사건도 검찰이 은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두고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권의 외압에 따라 실제로 사건을 축소·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에 꾸러진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은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조작할 기회를 줬고, 치안본부 간부들의 범인도피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수사 초기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이하 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 및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수사, 누락수사, 부실수사로 정찰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다만 "사건 발생 초기 검찰이 치안본부의 조작·은폐 시도를 막고 부검을 지휘해 사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질

식사임을 밝혀낸 점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중대 과오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23일간 강제감금·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묵살했다는 의혹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고문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나 안기부와 공모해 이를 은폐했고, 오히려 고문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사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또 정보기관이 안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통보받거나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안보수사조정권' 관련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냉전 이데올로기 시절 권위주의 정부의 유물에 불과하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본 투시도는 고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포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주)성원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